

우리결에 다시오신 성철 큰 스님

5부작 비디오 나왔다

생애·사상·육성법문 일목요연하게 다뤄 중도·윤회·선사상등 컴퓨터그래픽 처리

성철(性徹)스님의 생애와 사상, 유훈과 육성법문까지를 일목요연하게 담은 5부작 비디오 테이프 '우리결에 다시 오신 성철 큰 스님'이 나왔다.

백련문도회가 기획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총 8시간 25분 분량이다. 2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93년 11월 성철스님 열반 직후부터 12개월간 촬영하고 4개월간의 편집 작업을 거쳤다.

이 다큐멘터리의 특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중도 윤회 선사상등을 입체적인 컴퓨터그래

픽으로 처리했으며 크로마키를 이용한 특수화면 합성으로 화면의 역동성을 살린점등이 꼽힌다. 또 생가터와 수행처 해인사 일대는 헬기를 통한 항공 촬영까지 시도해 입체감이 넘친다.

또한 이 5부작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진 성철스님을 새롭게 조명해 내기도 했다. 출가동기가 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통설을 뒤엎었다거나 스님의 사상에 대한 오해의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해답

도 제시하고 있는 점이 관심을 끈다.

특히 이번 작업과정에서 성철스님과 관련된 미공개 영상자료, 각종문서, 사진자료등도 밝혀져 10여년전의 증경취임식 장면, 산책모습등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성철스님 입적당시 화재를 모았던 천발 불발스님의 인터뷰와 스님의 막내 동생인 이육선선사의 인터뷰도 담았다.

작가 송인선씨의 글을 김도현, 송두석, 김동성 이완호씨등 장성급 나레이터들이 해설한 이 5부작 다큐는 성철스님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유훈은 물론 생애 사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5부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편 「해탈의 길을 따라」, 탄생,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는 성철스님의 수행 발자취 ▲2편 「가야산 호랑이」 수행자로서의 수도자세와 정신 ▲3편 「붉은 한 수레바퀴」 한국 불교에 남긴 성철스님의 업적 ▲4편 「사바세계가 극락이다」 이 사회에 던진 성철스님의 가르침 ▲5편 「내 말에 속지마라」 직접 보고 듣는 성철스님의 육성법문.

백련문도회는 오는 15일부터 주문을 받아 판매 할 예정이다 (가격:1십만원, 주문처:733-4277). 판매 수익금 전액은 성철스님의 사리탑 건립을 위해 쓸 계획이다. 백련문도회는 또 이번에 제작된 「우리결에...」를 영어와 일어로도 꾸며 제작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성철스님

김교각스님 제적담은 다큐멘터리 출시



◇구화산 육신보전의 김교각상
중국 구화산의 지장보살로 칭송되고 있는 신라승 김교각(金喬覺)스님의 제적을 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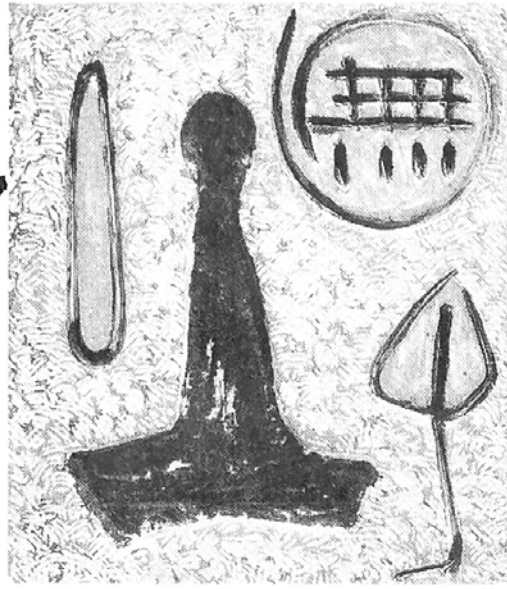
다큐멘터리가 2부작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됐다.

삼보영화제작소와 중국국제방송국이 합작으로 만든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은 김행수 감독이 김교각스님의 유적을 중심으로 엮었다. <승고승전> <중국불교인명명칭구화> <구화산지> 등의 문헌 자료를 토대로 주로 구화산 지역을 소개하며 김교각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다루고 있다. 1부와 2부 각각 51분 분량이다.

작년 9월부터 촬영에 돌입 편집까지의 과정을 마친 이 테이프는 지난 9일부터 시중에 출시됐다. (구입문의:233-2830)

제작팀은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

에 앞서 작년 10월17일 김교각스님의 등신상이 봉안된 구화산 육신보전에서 인덕 방장의 주관으로 한국의 흥을 담은 봉토식도 거쳤다. "이번에 출시된 이 테이프의 판매 수익금 전부는 김교각 스님의 일대기를 그리는 영화 '지장보살'의 제작비로 쓰이게 됩니다" 김행수 감독은 영화 '지장보살'의 제작에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지만 자금 조달이 넉넉치 않아 먼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고 밝히며 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감독은 영화 촬영을 위해 시나리오를 작성해 둔 상태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계획하지 못했다.



◇일획작 도부조 「반야심·호」

판화미술제 25일 '판파르'

해인사 화엄변상도 80점 공개 임효 도부조 반야심 시리즈도

미술의 해 기념 제1회 서울 판화미술제가 오는 25일부터 4월5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현대 작가의 판화와 우리나라 옛판화 2백여 점이 함께 소개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80점 규모의 해인사 화엄변상도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51개 업체와 외국 8개 판화 공방이 출품하는 이번 전시에는 불교적 소재를 도부조 기법으로 제작, 판화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임효씨의 작품 「반야심」 '사리자' 등도 소개된다. <반야심경>의 내용을 도부조판으로 형상화 시킨 임효씨의 작품은 도자기 판으로 구운 것과 구위에 한자를 넣어 찍은 후 채색을 한 것으로 독특한 질감과 색감이 작가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 준다.

이번 판화미술제는 서울에 이어 4월11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예술문화회관에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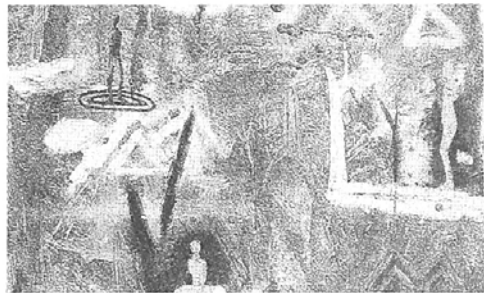
문화계 소식

현대불교문학상 제정

불교문화포교원(원장 해관) 산하 현대불교문화회(회장 수완)가 '현대불교문학상'과 '현대불교문학 신인상'을 제정했다. 금년부터 시행할 이 상은 현대불교문학 상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며 상금은 각각 2백만원과 30만원이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에 승려시인 오연스님이 위촉됐다.

'불교미술연구' 창간호 발간

동국대 불교미술 연구소는 △삼국사기 모법연화경 사경 변상도(寫經變相圖)의 연구/문명대·박도화 △동림사지 석조상존분상에 대한 고찰: 후삼국시대 조각의 일례/최성은 △조성종기 불전건축 내부공간의 정립/이강근 △토벽화(土壁畵) 보존처리방법에 대한 연구 / 문명대·김경미 △소조불상의 제조기법/이상배 △신라불교조각의 미의식/이은자 등 6편이다.



◇전통예술회관 「산내」

'사람살이' 주제로 최영문씨 개인전

24~30일 전북예술회관

인간을 자연속으로 귀의시킴으로써 조화와 평등을 유지하며 고향 회귀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질박한 언어들이 가장 한국적인 멋으로 표현된 그림들. 최영문씨의 세번째 개인전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전북 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장수고 교사인 최씨가 이번 전시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살이'다. 혼합재료를 이용한 회화와 설치작품들이 불교를 포함한 우리 민족 교유의 정서를 소박한 질감과 갈색 계통의 색감을 동원해 전해준다. 최씨의 세번째 개인전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인사동 서경갤러리에서도 열려 주목을 받았다.

불교전문채널
여시아문 737-0695

불심시심 <14>

꽃 동네 사람들

泥爲靑石髓 (니위청석수) 진흙은 푸른 바위 속 뼈
松作老龍鱗 (송작로룡鳞) 소나무 늙은 용의 비늘
(송작로룡鳞) (송작로룡鳞)
犬吠白雲隔 (견吠백운隔) 개의 짖음도 구름에 막힌
桃花洞裡人 (도화동裡人) 복사꽃 속 동네 사람들

서산대사가 화개동(花開洞)에서 지은 시이다. 동네 이름에 걸맞도록 꽃으로 덮여 있는 동네인 것 같다.

이 시는 전편의 선시의 수사적 특징으로 어우러져 있다 하겠다. 곧 선시의 수사적 특징의 하나가 바로 '일상성을 뒤집으면서도 진리와 합쳐짐'(反常合道)이다. 이 시는 이러한 특징의 전형성을 보여 준다 하겠다.

흙이 돌이 묻혀 있어 흙이 살이요 돌이 빠르면 상식으로 이해될 터인데 여기서는 흙이 빠라 하였으니 돌이 오히려 살이 된 셈이다. 일상적 논리의 뒤집음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네 주위가 모두 암벽으로 덮였으니 그 속의 흙은 빠져버린 것이다. 흙이 돌의 뼈일 수 밖에 없으니 바로 일상을 뒤집으면서도 현실의 진실에 접했다.

낙락장승의 소나무, 그 외피의 얽힘은 수많은 연륜을 나타내면서 늙은 용의 비늘처럼 거북하다. 이 거북한 속에 지

나온 무한의 세월이 있다 하지만 그 무한의 세월은 '지금'이라는 이 현재의 찰나 속에 갈무리된 현실 그대로다. 찰나에서 영겁을 보고, 영겁이 바로 찰나임을 의식하는 그야말로 시무애의 자세라 하겠다.

개 짖는 소리로 보아 불탑 없이 인가가 있을 터인데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구름에 가려서이다. 개의 짖음은 분명 때때로 들린다. 그러나 이 시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조용함이다. 이 조용함을 위하여 백운으로 가려놓았다. 곧 동중정(動中靜)이 되고 말았다. 이 또한 반상합도의 진리이다.

결국은 다시 이것을 뒤집어 놓는다. 복사꽃은 부동이고 그 동네의 사람은 동이다. 이것이 어우러졌으니 정중동인 셈이다. 꽃과 사람이 하나되어 동과 정이 어울렸으니, 꽃을 사람이라 해야하나 사람을 꽃이라 해야 하나. 아무래도 좋다. 이 유정물과 무정물의 합일이 이것이 바로 선경인 것이다.

이중찬 <동국대학교 교수>

인터뷰

"작년 티켓을 여행하면서 모든 예술시각은 종교로부터 발원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티켓인들을 행하는 오체투지(五體投地)의 신명모습에서 부처님을 향해 정진하는 허허로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불교춤 '허주' 구상 무용가 국수호씨



5월 '12인전' 무대에 올려-내년 '神曲' 발표

"오체투지 춤으로 승화할 터"

춤을 고안하기 시작했다는 국수호씨는 「허주(虛舟)」라는 작품 구상에 몰두해왔다.

오는 5월 '춤가 12인전'에 내용을 작품으로 판짜기에 들어간 「허주」는 티켓인들의 신 앙생활에서 종교적 영감을 바탕으로 짜여진다.

"티켓인들의 오체투지는 내년의 육신을 버리려는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주」라는 작품을 통해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는 구도자의 모습을 그려낼 것입니다."

20년전 송암스님께서 '불교의식의 무'를 전수받아 전통 불교 무용가로도 알려진 국수호씨는 이번 작품에서 공(空)과 윤의 사상을 적절히 잘 조화시켜 신앙심의 깊이를 맘껏 표출해 낼 작정이다.

국수호씨는 불교사상이 용해된 작품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있다. 88년에는 이차문의 순교를 그린 <하얀초상>을 발표했고, 내년에는 무교, 불교, 유교를 명백히 대비시키는 <신곡(神曲)>도 발표할 계획이다.

(끝)

수미산 여행

동남아·인도·중국·일본 성지순례

태국·미얀마사찰순례 (7박8일)	싱가폴·보르부들사찰순례 (5박6일)	태국사찰순례 (5박6일)
<p>지역: 서울, 인천, 파타야, 방콕, 미얀마, 앙콘, 만달레이, 파타야, 방콕</p> <p>일정: 10:30 김포공항 2(신)청사 2층 오현은행 앞 집결, 서울 출발, 방콕 등무임 공항 경우, 미얀마 앙콘 도착, 앙콘 출발, 파타야 도착 후 유적지 순례 (이랜드사원, 뒷빈사원, 쉼지코고다, 미누하사원 등 로인사원 등), 만달레이 도착 후 성지 순례 (쿠소도파고다, 쉼노도파고다, 만달레이 힐 등 불교 유적), 만달레이 출발, 앙콘 도착 후 파타야 유적지 순례 (쉼리온, 짜이벤 등 벵코의 유적지) 앙콘 귀환 후 휴식</p> <p>방콕 시내관광(에디콘아트, 까버(여사원 등) 앙콘 출발, 방콕 도착 후 호텔 투숙</p> <p>방콕 시내관광(수상시장, 새벽의 사원, 왕궁, 에메랄드 사원 등)</p> <p>오전: 태국 민속춤 '토조기' 관람, 오후: 방콕 시내관광(왕궁사원 등)</p> <p>방콕 출발</p> <p>서울 김포공항 도착 후 해산</p>	<p>지역: 서울, 김포공항 제1(구)청사 2층 신원은행 앞 집합, 서울 출발, 싱가포르 도착 후 호텔 투숙, 싱가포르 출발, 자카르타 경우, 자카르타 도착, 보르부들 사원(세계계 불가사리) 순례, 자카르타 출발, 리 빌리 도착 후 해변에서 휴식, 인도사원, 원숭이 사원 등 관광, 방콕 출발, 싱가포르 도착 후 호텔 투숙</p> <p>국립박물관, 대리언 공원, 주룽사 공원, 쉼바산장, 선토사원 등 시내관광</p> <p>싱가폴 출발</p> <p>서울 도착 후 해산</p>	<p>지역: 서울, 김포공항 신창사(2층) 2층 오현은행 앞 집합, 서울 출발, 방콕 도착 후 호텔 투숙, 방콕 피타야로 이동, 파타야 인생와라림시원 침례후 투숙, 파타야 동북방리지에서 민속춤 공연, 정음산책, 신화설 일주 및 휴식, 방콕으로 이동 후 시내관광, 방콕 (수상시장, 새벽의 사원, 왕궁, 에메랄드 사원, 황금 불사 등), 방콕 이우타리로 이동, 이우타리 이우타리 옛 고적지 침례후 방콕으로 귀환, 방콕 출발, 서울 도착 후 해산</p>

※ 중국 여행 문의 받습니다.

국외 여행업 등록 제358호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주) 수미산 여행사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2층
전화: (02)720-3241 ~ 7 / 팩스: (02)720-3248